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의 고전과 국역자료 모음전'

도서관 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고서전시회 · 가두캠페인 등 각 도서관마다 이벤트 실시

제33회 도서관 주간(4월 12일~4월 18일)을 맞아 국립중앙도서관 및 전국 각급도서관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진무)은 이 기간 동안 도서관 1층 전시실에서 '한국의 고전과 국역자료 모음전'을 가지는 한편, 주 이용객인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해 우수영화를 선정, 상영했다.

또한 16일 오후 2시 6층 회의실에서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과 이용자와의 대화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역점을 둔 전

시회에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고서원 전 50여종 100책과 고전국역자료 50여종 100여책을 전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과 국역자료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를 수집·보존·전승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사공철)는 도서관이 문화생활공간임을 인식시키고,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한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 아래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했다.

12일 오전 10시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 전문·특수도서관 직원 및 전국대학 문현정보학과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여한 가두캠페인을 필두로 ▲개관시간 연장 ▲교양강좌·좌담회 ▲모범이용자 표창 ▲독서대회 및 토론회 ▲어린이 동화구연 ▲도서관 현장학습 ▲명화·명곡감상 ▲전시회 및 강연회 등 각 도서관별로 다양한 행사와 기념 이벤트를 실시했다. (535-4868)

'97 기독교 출판 아카데미 개최

한국기독교출판협회(회장 김기찬)가 주최하고 예영커뮤니케이션(대표 김승태)이 주관하는 '97 기독교 출판 아카데미'가 4월 15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열린다.

실무경력 2년차 이상 5년 이하의 중급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편집인 재교육과정으로 개설된 이 강좌는,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실무중심의 전문적인 안목을 키운다는 목표다.

강의는 4주에 걸쳐 매주 화·목요일 3시간씩 모두 24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편집자가 알아야 할 마케팅(강사: 김승태) ▲기획의 실제(장익순) ▲광고·홍보론(문승찬) ▲출판미술(금진우) ▲전자출판론(금진우) ▲번역출판론(황을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수강료는 회원사 15만원이며 비회원사 및

개인은 20만원. (3474-0820)

편운문학상에 마종기·홍기삼씨

제7회 편운문학상 수상자에 마종기(시 본상)씨와 홍기삼(평론 본상)씨가 결정됐다. 채종한·최화국씨도 각각 신인상과 특별상을 수상한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금) 오후 6시 동숭동 문예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 편운문학상은 지난 1990년 시인 조병화씨의 뜻에 따라 제정, 91년부터 매년 5월초에 본상과 신인상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해왔다.

'초방' 볼로냐도서전에 부스 설치

어린이 전문서점 초방(대표 신경숙)이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렸던 '97 이태리 볼로냐 아동도서전에 독립부스를 설치하고 'Chobang's Choice from Korea'라

는 행사명으로 참가했다. 이 행사에서는 국내의 우수그림책을 엄선, 전시함으로써 세계 어린이책 출판계에 한국의 그림책을 알리는 한편, 저작권 상담과 대행 업무도 함께 했다. (392-0277)

계몽사 일러스트레이션 대상에 김수현씨

종합문화기업 (주)계몽사(대표 김준식)가 재능 있는 일러스트레이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제4회 서울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콘테스트' 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에 전북 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에 재학중인 김수현·이영용씨의 <무지개 나라>가 결정됐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400만원이 수여된다. 가작(상금 100만원)은 최규자씨의 <회색물고기>와 안드리아 브룬씨의 <행복한 빼꾸기>이며, 이밖에 입선작으로는 김영미씨의 <날개없는 새>, 민성혜씨의 <엘로이즈와 늑대>, 최정인씨의 <숲속 이야기>가 각각 결정됐다. (531-5608)

제4회 서울 국제고서전 개최

한국고서협회(김재갑)가 주최하는 제4회 서울 국제고서전이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 까지 서울 공평동 공평아트홀 1, 2층 전시관에서 열렸다.

1층에는 호고당·호산방·안동민속당·한강사·고려사·한국출판무역(주) 등 17개 서점이 부스별로 참가, 고서를 출품했다.

2층 전시장에는 중앙홀에 책사랑(범우사)이, 벽면 전체에는 회원사 협동으로 마련한 고서회를 전시했다.

각종 고서와 고문서, 간찰(簡札), 글씨 외



공평아트홀에서 열린 제4회 서울국제고서전

에도 각 씨족의 족보를 특별 전시해 애호가 및 일반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735-2876)